

7/5/20

은혜한인교회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1부 중보기도 : 목회 2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에스터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청년부팀 (2:00pm~3:30pm)

love wins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10-13]

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요 7:38]

- 1)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 2) 이 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탕자가 돌아오는 예배, 병든 영혼이 소생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3)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보내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켜 고침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 4)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고 2차 재확산도 없게 하셔서, 성전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 5) 모든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에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고, 예배 순서 마다 충만한 은혜로 덮여 주옵소서!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 2 & 3부: 김대규목사)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찌어다 [시 29:2]

- 1) 찬양 중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 2) 찬양 인도자 및 찬양팀, 반주자, 악기 담당자, 음향 담당자 등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 3) 찬양 중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 4) 다윗의 찬양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 5)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김현철목사, 케니박목사, 전성호목사)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3. 대표 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이재훈장로, 김성웅장로, 박한진장로)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회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 하늘보좌를 흔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 회중의 마음에 들리지게 하옵소서

- 1)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신앙의 개혁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2)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통해, 때를 분별하고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옵소서[말씀: 마가2:10-13]
- 3)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대와 구강회복과 눈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믿는 자의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 4) 말씀이 선포 될 때,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일천번제 새벽기도 (4/10/2021 까지)
- 한 여름 성경집회: “신앙이 다시 떠오르게 하라”(7/23-26)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죄악에 물든 마음과 생각을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2) 설교시간에 어두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공간의 분위기가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 3)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어지되…”**(욥전 3:12) 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 4)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시119:50)”**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했던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2.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3.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세계선교 마무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5.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6. 굶주렸던 영혼이 말씀의 은혜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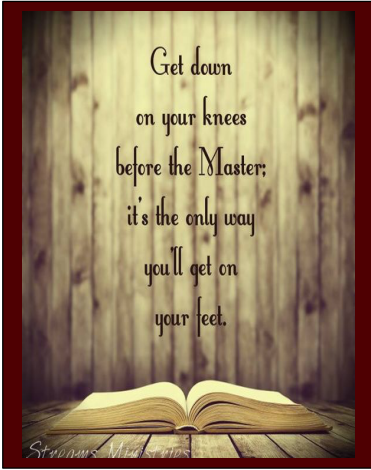
-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a.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 b. 날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물들로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 c. 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 d. 드러지는 헌금이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 1) 한 주간도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 2)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 말씀통독**을 통해,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 3) 온라인 그룹 및 가정교회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 4) 그룹과 가정교회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 1)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 2)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3)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대면 기간동안 학생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방법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게 하옵소서.
- 4)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EM 과 교육부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을 위한 기도

- 1) 하나님의 긍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모든 질병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 2)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옵소서.
- 3) 환우와 가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옵소서
- 4) Jesus Light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 5)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 받지 않고 날마다 주의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 6) 이들을 돕는 모든 사역자와 사역팀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성령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 1)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세계 선교를 강건하게 감당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귀국하시는 일정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 2) 복음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풍성한 확장이 있게 하옵소서
- 3) 선교사님들이 성령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성령의 역사와 위로하심이 모든 선교지에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 2) 선교지의 모든 성도들이 환난의 시기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 3)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 4) 전 세계에 세워진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충성스런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1. **두산배 최윤섭 선교사님과 성도:** 현재 상태가 조금씩 호전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선교사님의 건강과 교회를 위해 긴급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파나마 김재한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3. **하바롭스크 정소남, 미선 선교사님 :** 코로나 확진자 2명과 폐렴환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이 중 한 분은 사역자입니다) 그 가정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A 국 이에신 선교사님:**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의 치유가 선교사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암에서도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미얀마 김지호, 오지 선교사님:** 7월 21일 신학교로 다시 시작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지켜 주시도록 / 김오지 선교사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도록
6.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김운용 선교사님:** 닫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성경 번역 사역의 협력을 위해
7. **터키 최 00, 이 00 선교사님:** 이선교사님의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속히 깨끗이 치유되도록/ 어린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8. **베트남 이 00, 장 00 선교사님:** 베트남의 복음화와 소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모두의 안전과 성령충만
9. **케냐 황광식, 원지혜 선교사님:** 코로나 후의 사역이 잘 준비되도록/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교회의 공예배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본교회 현장 예배는 3 주 후로 연기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안전을 지켜 주시고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회복해 주옵소서.
 - 캘리포니아주는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인해 교회 현장 예배 중 찬양, 성경암송, 선포 등을 금지 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시기에, 더욱 긴장을 놓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2. **COVID-19** 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빠른 시일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3. 팬데믹의 여파로 교회의 목회자들 뿐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선교/전도 활동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기간, 선교지에서의 다음 사역을 위해 영육간의 재충전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비대면 사역을 준비함으로써 선교/전도가 계속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4. 미국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 만 7 천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달라고 외치며 일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항하며 분노합니다.
 -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 주옵시고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정부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 개인주의와 무질서 버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5.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100 만을 돌파했고, 현재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가 가장 확진자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일 신규 확진 연속 최대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의 절반은 감염경로조차 확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을 지켜 주시도록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공화리 여기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행 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계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골 1:10]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I. 회개운동과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회개>안일한 신앙 생활, 잘못된 우선순위, 영혼에 대한 무관심, 부도덕적인 삶, 가정사역 소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2. <코로나 종식> 전능하신 치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코로나를 묶어 주심으로 영광 받으소서. 의료진과 환자 수송을 돕는 관계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들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3. <한인교회> 미국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가정마다 깨어나게 하시되, 특히 한인교회들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II. 미국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미국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이 인간적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바르게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2. <캘리포니아> 친동성애적인 법안들, 공립학교 성교육 교과서가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하옵소서.
3. <11 월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 주지사, 상하원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가 이루어져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III. 청교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신앙회복> 미국이 청교도 신앙과 정신을 버렸음을 용서하시고 청교도 400 주년을 맞아 신앙 회복 운동(부흥과 순결, 기도와회복)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미국이 청교도의 첫사랑, 첫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2. <한인크리스찬>들이 청교도들처럼, 성경적 신앙, 주일성수, 가정예배,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 의식과 재정관리 등 높은 도덕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제 2의 청교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와 선교> 젊은이들에게 대부흥을 주옵시고, 세계 선교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학교를 통해 좋은 믿음의 인재들을 양성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국가기도회날 기도제목>

COVID-19

전세계 확진자 : 11,080,529 / 사망자 : 525,209

미국 확진자 : 2,890,588 / 사망자 : 132,101

OC 확진자 : 15,778 / 사망자 : 360

“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번 주간 저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 5일 주일 현장 예배를 위하여 지난 2주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현장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우리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가주에 계속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LA 지역이나 O.C 지역에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7월 1일 주지사가 3주간 사업장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IN DOOR Service 중단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고심 끝에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현장예배를 3주간 연기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열려고 결정하였습니다.

모두가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시는 성도님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쉬워도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확진자가 283만 명이 넘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숫자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기에 일천번제 기도에 더욱 집중하길 원합니다. 회개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도록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며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질병은 누구나 언제든지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가족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그릇 목사, 그릇장,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서서 함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우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육체적 질병보다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상담국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는 두산배 최윤섭 선교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덕분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힘든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된 예배와 행복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때 힘을 얻고 회복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일천번제 새벽예배를 사명감을 가지시고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며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회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끝맺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는 우리들의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결코 우리가 지은 죄를 열거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아닙니다.

원래 희랍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Metanoia)라고 부릅니다. 이때 메타란 Exchange 혹은 Transfer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요, 노이아는 바로 우리의 마음 혹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삶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거짓말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왜 간음을 하게 됩니까? 간음을 통하여 느끼는 쾌감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냄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시원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십일조 생활을 못할까요?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회개는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끝이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간음죄를 저지른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다음과 같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저는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간음함으로 얻는

쾌감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에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사탄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 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너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하기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한 것도 바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시킴으로 이미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9 일 밤 LA 를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천 입국 절차를 어렵지 않게 마치고 현재는 집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진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2020 년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키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므로 2020 년 후반기에 능력 있는 크리스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위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 119:50]

הַנְחָמָה

위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네하마**)에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유래 되었다. 이 단어는 이곳과 욥기 6:10 절에만 나온다.

“그러할찌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 6:10]

이 때 ‘위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회개하다, 위로하다’는 뜻이다. 분명 참된 기쁨은 회개의 눈물에서 비롯된다. 눈물은 영적 기쁨을 야기시킨다. 한나는 울고 나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꿀벌은 가장 쓰디쓴 식물로부터 최상의 꿀을 거두어들인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셨다...

- † 복음의 위로는 첫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이다(렘전 1:8; 빌 4:4)
- † 둘째, 실제적이다(요 14:27).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럴 듯해 보이나 실상은 낙심케 하는 위로들이다.
- † 셋째, 거룩한 위로이다(사 64:5; 시 138:5).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한결같이 거룩하다.
- † 넷째, 가장 크고 강력한 위로이다(엡 6:17).
- † 다섯째, 속 사람에게까지, 영혼에게까지 미치는 위로이다(살후 2:7). 다른 위로들은 우리의 표정에만 닿을 뿐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미치지 않는다.
- † 여섯째, 가장 영혼을 만족시키는 위로이다(시 16:11; 아 2:3). 다른 위로들은 영혼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하며, 따라서 영혼을 만족시키지도 못한다.
- † 일곱째, 가장 서글픈 낙심에 사로 잡혔을 때, 가장 캄캄한 밤에, 그리고 가장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 위안을 주는 위로이다(시 94:19; 합 3:7-8).
- † 여덟째, 영원한 위로이다(살후 2:16).

“악인의 기쁨은 단지 부서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지속적이다” -토머스 브룩스(Thomas Brooks)

찰스 스필전 시편 강애 중에서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World Prayer Center

기도지 제작 : 은혜 한인교회 중보기도국
문의 : gracewpc.com